

# 광주 '스쿨미투 여고' 남교사 절반 입건

### 19명 직위해제·수업 배제 경찰, 졸업생 고소 바탕으로 3명 추가 입건...2명 구속영장

광주 모 여고 '스쿨미투' 사건 가해교사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추행 등 범행 정도가 무겁거나 다수 학생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이 졸업생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가해교사 3명을 추가입건함으로써 이 학교 전체 남성 교원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9명이 성범죄 혐의로 입건, 직위해제되는 등 후폭풍이 가시질 않고 있다.

한 법률위반 혐의(성추행·성희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3학년 학생이 입학한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제자들을 추행하거나 희롱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신청된 교사 2명은 입건된 16명의 교사 가운데 피해 학생들로부터 (성범죄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교사의 구속여부를 가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들은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한 최근 이 학교 졸업생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여 성범죄 가해교사 3명을 추가 입건했다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추가 입건된 3명의 교사 역시 이 학교에서 여자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 부

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교사들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학생 180여명 가운데 70% 가량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수는 이후까지라도 조사를 진행해 교사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학부모의 민원제기를 바탕으로 지난 7월 18일 불거진 광주 모 여고 스쿨미투 사건은 지난 2개월 동안 학교장 자체 긴급 설문조사, 시교육청·경찰 해당학교 학생 전수조사, 경찰 조사 및 졸업생 가해 교사 추가고소 등을 거치며 광주 교단에 폭풍을 몰고 왔다. 가해자로 지목받은 교사 16명에 대해서는 7일 말부터 8일 초까지 분리조치와 직위해제 조치가 순차적으로 내려졌고 졸업생

고소를 통해 추가 입건된 교사 3명(1명은 같은 학교법인 산하 다른 여고로 전근)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교사들 입탈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고 있다. 성추행, 성희롱이라는 성범죄 피해에 더해 전체 교원(57명)의 30%, 남성 교원의 절반에 이르는 가해교사가 교단에서 무더기로 쫓겨나면서 학교 교육 파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과 해당 학교 측은 3학년을 가르쳤던 가해교사 3명의 빈자리에선 최근까지 3학년을 지도했던 퇴직교사를 시간강사로 채용하고 1, 2학년 지도 교사들을 우선 배치했다. 나머지 교사의 빈자리는 외부로 파견됐던 교사 4명과 기간제 교사들로 충원하면서 빈틈을 메우는 형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우리 한복 어때요? 광주 청년들이 기획한 '2018 광주 한복데이'가 1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가한 청년들이 한복을 차려입고 각자 개성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서면 수사지휘 강화 방안

### 11월부터 전국 확대

### 경찰 수사 투명성 높인다

경찰청은 "수사지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말이 아닌 서면으로 수사지휘를 내리는 '서면 수사지휘' 강화 방안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상급자의 부당한 수사 개입 등을 막고자 지난 6월 '서면 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본청과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 등 4개 지방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43곳에서 2개월간 시범운영했다.

중전에는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만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다.

경찰은 '범죄 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를 추가했다. 인지만 사건을 정식 입건하는 단계나 통신감청·위치추적·통화내역 확인 등이 필요할 때도 서면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경우에도 기록을 남기도록 했다.

경찰은 시범운영한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경찰청 훈령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하고, 오는 11월 중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6	달뜨기	13:35
해질	18:37	달짐	23:53

향해 주의하세요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다.

광주	맑음	20/27	보성	구름많음	19/27
목포	맑음	21/26	순천	맑음	21/28
여수	구름많음	22/26	영광	맑음	20/26
나주	맑음	20/27	진도	구름많음	21/26
완도	구름많음	21/27	전주	맑음	20/27
구례	맑음	20/27	군산	맑음	19/26
강진	구름많음	20/28	남원	맑음	19/27
해남	구름많음	21/27	흑산도	맑음	21/25
장성	맑음	19/27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먼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먼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생활지수

위험	☹️
높음	☀️
보통	😊

◇주간 날씨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	☀️	☁️	☀️	☀️	☀️	☀️
18/27	17/27	19/26	20/27	17/26	16/26	16/25

##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수시 경쟁률 소폭 상승

광주·전남 주요 대학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지역 각 대학의 집계(잠정) 현황에 따르면 전남대는 3141명 모집에 2만1871명이 지원해 6.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전남대의 지난해 경쟁률은 6.55대 1이었다.

모집단위별로는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28.25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수의예과 19.29대 1, 교육학과 18대 1 순이었다.

조선대는 3587명 모집에 1만5969명이 지원해 4.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선대의 지난해 평균 경쟁률은 4.6대 1이었다. 학교별로는 의예과가 1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치의예과 16.2대 1 순이었다.

호남대는 1573명 모집에 1만985명이 지원해 7대 1로 광주·전남 4년제 대학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대는 1665명 모집에 9577명이 지원해 5.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여대는 918명 모집에 5205명이 지원해 5.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원대는 716명 모집에 3452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4.8대 1로 지난해 5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

동신대는 1558명 모집에 8445명이 지원해 지난해(5.33대 1)보다 조금 높은 평균 경쟁률 5.42대 1을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추석 택배 물건 배송 가장 스미싱 문자 주의보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급증한 50만여건 탐지됐다. 올해는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문자가 1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위원 추천 안해...5·18진상조사위 출범 결국 무산

### 빨라야 연말께 활동 들어갈 듯

자유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법 시행일(9월14일)에 맞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결국 무산됐다. 16일 국회,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구성되는 조사위원은 모두 9명으로, 국회의장 1명(상임위원), 여·야당이 각 4명(상임위원 1명씩 포함)을 추천하면 대통령령이 임명한다. 한국당에 배정된 추천 위원수는 모두 3명으로, 한국당은 이날까지 신중하게 후보

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다.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 조사위 출범도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당장 위원 추천을 한다해도 청와대 인사검증과 임명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 조사위가 구성되더라도 조사관 등 채용, 조직 구성, 사전 교육 등에 2~3개월이 걸려 이른바 올말께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조사위 출범을 촉구하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부디 한국당이 의지를 가지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위원을 서둘러 추천해 조사위가 하루 빨리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장은 안중철 한국현대사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에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비상임위원에 민병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윤정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성춘 송원대학교 교수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임위원으로 오승용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